

- 네 개의 경제체제 -

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등을 상부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 경제체제는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에 따라 초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다.

-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두가지로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다.
-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 세금과 복지는 비례한다.

세금 ↓ 복지 ↓ {장점: 경쟁 ↑, 능률 ↑, 경기활성화 ↑
단점: 빈부격차 ↓, 사회불안 ↑

세금 ↑ 복지 ↑ {장점: 빈부격차 ↓, 사회불안 ↓
단점: 경쟁 ↓, 능률 ↓, 경기활성화 ↓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

너에게 생산수단을 허하노라

-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잉여생산물 모두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제이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지만 잉여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제다.

- 초기 자본주의 -

시장은 자유다

- 애덤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 자유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조정능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애덤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다.
-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에 대한 신뢰,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 경쟁에 의한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 상황을 몰고 온다.

- 후기 자본주의 -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했다.
-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린다. 그리고 이 자금을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재사용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사회적 빈부격차가 줄어들며, 정부의 재정이 늘어난다.
-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거대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시대가 온 것이다.
- 수정자본주의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이고, 두 번째가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 초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인간의 얼굴을 한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불황과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시장의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침체가 발생한 것이다.

- 신자유주의 -

다시 시장에 자유를 주어라

- 신자유주의 시카고학파가 주도했는데, 이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장기불황의 원인을 수정 자본주의가 추구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보았다.
-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시장의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 거대 자본력을 가진 자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자신의 순이익을 지킬 수 있지만 노동자는 경기침체기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 공산주의 -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다음으로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자본가를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없다.
-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가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사회. 이것이 공산혁명의 목표였다.
-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대략 마르크스주의를 칭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간의 갈등으로 설명하고, 그 갈등의 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비롯한 세계 전체가 변증법이라는 원리를 통해

발전해나간다고 보았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3단계를 거쳐 전개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반,합의 관계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 헤겔은 부르주아가 인류 역사의 완성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다.

- 헤겔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다. 부르주아 역시 근대의 정상적인 존재이므로 필연적으로 그에 모순되는 프롤레타리아와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둘이 투쟁해서 결국 미래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계급 갈등을 청산할 마지막 계급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생산수단을 특정계급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더 이상의 권력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지배관계도 사라진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다.

-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한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도 소수가 부평등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 공산주의 붕괴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근본적이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설명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관념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는 없다. 실제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분배하는 존재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람이다. 즉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소수가 권력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자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실현되지 않는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인물이 필연적으로 탄생한다.

- 공산주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에 있다.

복잡하고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판단의 실수,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발생 등 계획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왜곡이나 비효율성 등 정부 실패를 발생시킨다.

- 공산주의가 실패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의 방해가 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데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시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상정했다.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이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만든 주요 원인된다.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

무엇이 공산주의이고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로 보는 입장을 공산주의라 한다. 반면 노동자는 실제로 스스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엘리트계급 또는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사회주의라 한다.

- 둘째,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갑자기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노동자가 아닌,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사회주의라 한다.

이 구분 방법은 공산주의를 궁극의 목표로, 과도기 단계를 사회주의로 설정함으로써 두 체제를 구분한다.

- 셋째, 내포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에 의한 계획경제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역사와의 관계 -

경제체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

결국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다

-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성장중심 정책’이다.

-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부유한 개인과 기업의 세금이 늘어난다. 높은 세금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 투자 비용을 줄이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증가하면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사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 즉 복지수준을 높이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분배중심정책’이라고 한다.

-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가는 경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